

일본의 SIM 잠금해제 정책추진 동향

A Trend of SIM Unlock Policy in Japan

조수미 (S.M. Cho)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 선임연구원
 김성철 (S.C. Kim)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 팀장

목 차

-
- I . 서론
 - II . SIM 잠금해제의 현황 및 효과
 - III . SIM 잠금해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 IV . 결론

일본 총무성은 2010년 6월 30일 SIM 잠금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SIM 잠금 정책을 구체화 하였다. 이를 통해 2011년 4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부터 이동전화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SIM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 불리는 기술 국수주의를 극복하고, 이동통신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신사업자들의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NTT 도코모와 KDDI는 총무성의 SIM 잠금해제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자사의 아이폰 가입자를 도코모로 유인하려는 의도로 생각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총무성의 SIM 잠금해제 정책이 일본의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I. 서론

일본 총무성은 갈라파고스 신드롬으로¹⁾ 불리는 기술 국수주의를 극복하고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통신사업자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휴대폰 가입자인증모듈(SIM) 카드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²⁾

제3세대 휴대전화(3G)에서는 전화번호나 네트워크 정보가 들어가 있는 SIM³⁾을 단말에 꽂아 사용한다. 현재, 일본의 휴대전화 단말은 특정사업자의 SIM 카드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를 SIM 잠금(SIM Lock)이라 한다. SIM 잠금장치는 GSM 방식의 단말이 개발된 이후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의 단말에 부여한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SIM 잠금장치는 사용자, 단말제조사, 콘텐츠 사업자 등 이동통신환경의 전 영역에 걸쳐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복수의 SIM을 사용하는 것이 차단되기 때문에 타사업자가 제공하는 저렴한 요금의 서비스나 자신이 원하는 특정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SIM 잠금장치 기술을 지속적

로 개발해야 하며 사업자나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한 별도의 설비를 유지해야 하는 등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SIM 잠금장치를 통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유지됨으로써 사업자가 서비스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사의 전략에 부응하는 단말을 출시하도록 제조사에게 요구하거나 독점적인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

사실 유럽, 미국 등 해외의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SIM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사업자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2세대 이동통신 환경부터 SIM 카드에 잠금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기에 SIM 잠금장치를 하였으나, 총무성이 2010년 6월 30일 SIM 잠금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5월에 공표한 원안대로 결정하였다[2],[3]. 이에 본 고에서는 일본의 SIM 잠금해제 추진 동향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그리고 예상효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USIM 잠금해제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SIM 잠금해제의 현황 및 효과

1. SIM 잠금해제의 정책추진 현황

일본은 2002년부터 SIM 잠금해제에 대한 정책검토가 있었다. 2002년 6월, 총무성은 SIM 잠금해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여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정책은 없었다.⁴⁾ 이 때 NTT 도코모가 단말기 판매 분야는 경영의 자주적 판단에서 결정할 문제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J-Phone(현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SIM

4) 정보통신 신시대의 비즈니스모델과 경쟁환경 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 회 보고서

1) 2009년 미국 뉴욕타임즈에 “왜 일본 핸드폰이 글로벌하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일본의 휴대폰 업체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혁신을 선도했지만 외부와 단절되어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수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빗대어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 한다.
2) 2007년 초 총무성은 이동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SIM 잠금장치 해제를 검토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WCDMA 방식에서의 전이과정부분 진행되었고, CDMA 방식의 3세대 사업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SIM 잠금장치 해제로 인해 오히려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자간 경쟁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의 시행을 2010년 이후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3) SIM 카드는 가입자 식별정보를 수록해 휴대폰에 탈착할 수 있는 일종의 칩카드이다. 가입자들은 SIM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원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방식이 GSM인지 WCDMA인지에 따라 SIM과 USIM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잠금해제는 사업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업자, 단말기 공급자 등을 포함한 전담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2006년 7월 총무성은 휴대폰에서 보조금 문제, MVNO 활성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조건 하에서 SIM 잠금을 해제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의견 개진과 함께 이해추체간의 협의를 통해 2007년 관련 정책 수립을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⁵⁾ 그러나 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모바일 등 사업자는 SIM 잠금해제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정부는 사업자가 자유로운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청하였다.

한편 2007년 6월 총무성 주관 모바일 비즈니스연 구회에서는 SIM 잠금해제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2010년 시점에 3.9G나 4G를 중심으로 SIM 잠금해제를 법제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행 3G에서는 2가지 기술방식(WCDMA/CDMA2000)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어, 2G부터의 SIM 잠금해제 의무화는 3G 사업자간 경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총무성은 2010년 4월 2일 SIM 잠금장치 해제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개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SIM 잠금해제 정책을 확정하였다[4]. 일본에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려면 SIM 잠금에 의해 대부분 타사의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동통신사를 변경해야만 했는데, 총무성은 이러한 SIM 잠금이 이용자의 이동통신사업자 및 단말기 선택에 제약이 된다는 판단 하에 휴대폰의 SIM 잠금해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SIM 잠금해제 대상 단말을 2011년 이후에 출시되는 단말기로

〈표 1〉 SIM 잠금해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단말기	2011년 4월 이후 출시되는 휴대전화단말기에 한함
타사 단말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타사가 제공하는 단말 이용자에게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함
대리점과 이용자에 대한 설명책임	잠금 해제 조건, 수수료, 타사 SIM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을 설명해야 함
사업자에 대한 요구	자사가 판매하는 단말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이드라인 재검토 방침	사업자 대응, 이용자 평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하여 검토

〈자료〉: 총무성 홈페이지

제한하고 있으나,⁶⁾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 등 단말 종류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3.9세대 및 3.5세대 등 통신시스템에 의해서도 구분되지 않는다.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동전화사업자는 SIM 잠금을 해제하기로 하였고[5], 또한 사용자가 다른 회사의 SIM 카드를 삽입하면 통신서비스나 응용 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이용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⁷⁾ 단, 총무성은 SIM 잠금해제 방안과 관련하여 해제 대상 단말은 사업자의 자율성에 맡긴다고 하였으며, 법제화를 통한 SIM 잠금해제 의무화는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표 1〉 참조)[6].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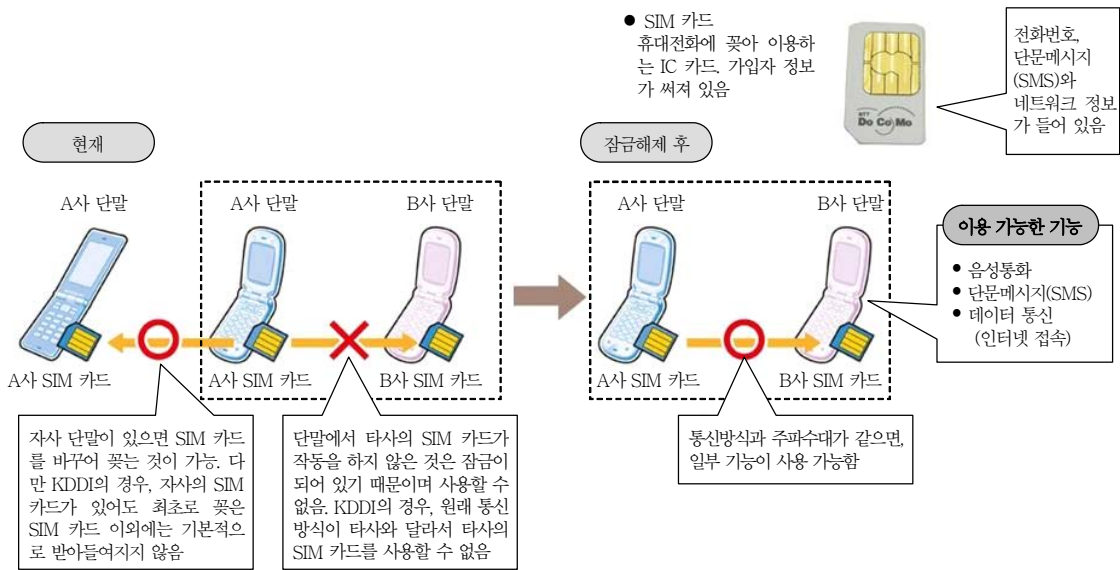
SIM 잠금해제로 총무성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6) 해제 대상 단말을 2011년 4월 이후 모델로 제한한 것은 총무성이 SIM 잠금해제의 단말이 미치는 영향 등 단말기 개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 대상 단말기, 잠금 해제 조건,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표하고, 잠금해제의 편의와 일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 등 고려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8) 잠금 비용 등 대부분을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에 맡길 예정이지만 실시 상황을 주시하여 지침안에 명기하도록 할 예정이며, 대상 단말이 매우 적어 사업자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제화도 검토하고 잠금을 강제화할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5) IP화 진전에 대응한 경쟁 규칙의 방향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안)



(그림 1) SIM 잠금해제 전후 단말 사용 여부

및 사업자간 경쟁촉진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즉, 일본은 휴대전화시장에서 각사 통신표준 방식 및 방송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SIM 잠금해제로 휴대폰에 포함된 다른 공급 업체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휴대전화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SIM 잠금해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2. SIM 잠금해제의 효과

본 절에서는 현행 단말에서 SIM 잠금장치가 해제되면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SIM 잠금해제로 인한 효과는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타사의 SIM 카드를 꽂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이외에 iPad 등 다기능 정보단말기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은 SIM 잠금이 되어 있으므로 NTT 도코모의 단말이라면, NTT 도코모의 SIM 카드 밖에 사용할

수 없다(그림 1) 참조[7]. 즉, 현재 휴대전화에 SIM 잠금이 걸려있는 단말에는 동일한 사업자의 SIM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SIM 잠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사의 SIM 카드를 끼워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SIM 잠금이 해제되면 통신방식 및 주파수 대역이 일치한다는 조건 하에서 음성통화와 같은 일부 기능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⁹⁾ 현행 단말과 휴대전화 각사의 SIM 카드로 가능한 조합은 <표 2>와 같다. 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음성통화나 단문메시지(SMS), 데이터 통신(인터넷 접속) 등으로 제한되며, 각사의 단말은 자사의 플랫폼에 맞추어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NTT 도코모의 'i-mode'나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Yahoo! 휴대폰' 등의 사이트는 타사의 단말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¹⁰⁾

둘째, 스마트폰은 이동전화사업자의 네트워크나

9) 단, KDDI의 경우는 다른 3사가 채택하고 있는 통신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타사의 SIM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10) NTT 도코모와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WCDMA로 통신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SIM 관련 현황도 동일하나 KDDI는 통신방식이 타사와 다른 CDMA 2000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타사의 SIM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표 2〉 SIM 잠금해제시 현재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합

구분	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모바일	e-Mobile	KDDI
NTT DoCoMo				
- W-CDMA		○	○* ¹	
- 800MHz대, 1.7GHz대 (히가시메이한 지역에 만), 2GHz대	○	(2GHz 대에 한함)	(2GHz 대에 한함)	×
소프트뱅크 모바일				
- W-CDMA	○	○	×	×
- 2GHz대				
e-Mobile				
- W-CDMA	○	×	○	×
- 1.7GHz대				
KDDI				
- CDMA2000	×	×	×	○* ²
- 800MHz대, 2GHz대				

주) *1: 히가시메이한 지역에만 한정됨
*2: 최초로 장착한 SIM 카드 이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서비스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전화사업자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는 단말에 따라 일부 이동전화사업자가 독자적인 사용자 정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현재의 휴대전화 단말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SIM 카드만 소지하고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통신방식과 주파수 대역이 같으면 자기 번호로 로밍서비스(플라스틱 로밍)를 이용할 수 있어 국제 로밍으로 인한 높은 통신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 말부터 일본 내에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LTE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다. LTE 네트워크를 통한 음성서비스가 본격화 되면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방식이 동일하게 되며,¹¹⁾ 결국 이용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단말기를

11) KDDI는 2012년 12월 4세대 통신인 LTE 제공을 계획중이고 소프트뱅크 모바일은 3.9세대 통신인 DC-HSDPA를 2011년 7월부터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을 뿐 LTE 계획은 미정이다. 이에 반해 NTT 도코모는 2010년 12월부터 LTE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해 원하는 통신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이상에서 총무성이 실시하기로 한 SIM 잠금해제로 인한 정책현황 및 효과를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SIM 잠금해제에 대한 휴대전화사업자, 정부, 단말업체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SIM 잠금해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1. NTT 도코모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NTT 도코모는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적용되는 모든 휴대폰에 SIM 카드 잠금장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NTT 도코모가 2011년 4월부터 출시하는 모든 단말기에는 SIM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게 된다[8].

NTT 도코모의 이번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3위 사업자인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아이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9]. 그러나 도코모는 SIM 카드 잠금장치를 풀더라도 단기간 내에 대규모 가입자 이탈, 유치 등 시장상황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소프트뱅크 모바일

일본 3위 이동통신사업자인 소프트뱅크는 SIM 카드 잠금장치의 전면적인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NTT 도코모의 SIM 카드 잠금장치 완전 개방계획이 자사가 독점 판매하고 있는 아이폰 가입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10].

소프트뱅크는 아이폰의 초기 판매부진을 타개하

기 위해 가격인하를 단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아이폰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아이폰의 SIM 카드 잠금장치를 해제할 경우 저가 판매정책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는 총무성이 추진중인 SIM 카드 잠금장치 해제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아이폰을 제외한 다른 휴대폰에 한정하여 SIM 잠금을 해제하기로 하였다[11].

3. KDDI

일본 2위 이동통신사업자이자 방송시장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KDDI는 총무성이 추진중인 SIM 카드의 잠금장치 해제를 일련의 규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라고 하였다[12]. 그러나 KDDI 오노데라 대표는 SIM 카드의 잠금장치 해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강제적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4. 단말기 업체

총무성의 SIM 잠금장치 해제에 관해 일본의 269개의 단말제조업체로 구성된 정보통신네트워크 산업 협회(CIAJ)는 SIM 잠금해제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다. CIAJ는 SIM 잠금이 해제되면 여러 통신회사의 전용 단말 개발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판매 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13].

총무성은 SIM 잠금장치가 해제되면 현재보다 낮은 가격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단말 제조업체는 복수의 통신회사에서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발비가 큰 폭으로 증

가할 수 있어서 단말 가격이 비싸지는 것 이외에 복수의 주파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용적을 크게 하면 단말 사이즈가 확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NTT 도코모의 i-mode로 대표되는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는 통신회사의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의 단말기로 바뀌면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메일 주소 등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수십 문자의 단문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는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지원하는 기능이 휴대폰 자체에 있기 때문에 SIM 카드를 옮겨도 인터넷 검색 등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분야는 애플 등 해외 제조업체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일본 단말업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상에서 SIM 잠금해제에 따른 단말 제조사의 우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① 통신회사의 규격결정에 근거해 실시하는 단말의 개발 체제가 변형될 수 있다.
- ②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통화와 문자메일만 이용할 수 있다.
- ③ 모든 통신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단말기 개발에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 ④ 복수의 주파수를 지원하려면 단말 크기가 확대된다.
- ⑤ 통신회사 갈아타기로 단말의 애프터서비스가 어려워진다.

5. 정부

총무성은 이용자의 단말기 및 통신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SIM 잠금장치 해제를 추진해 왔다. 잠금장치가 해제되면 이용자들은 새 단말기를 구입

하지 않고도 SIM 카드만으로 통신사업자를 옮겨 다닐 수 있게 된다.

또한 총무성은 SIM 카드 잠금장치 해제방안이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업자간 경쟁촉진을 통해 요금인하 및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휴대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V. 결론

SIM 잠금해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의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 SIM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판매하는 단말기의 경우 국내/외의 SIM 사용이 자유롭고 SIM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판매한 단말기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유/무상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있다. 이러한 SIM 잠금해제 정책은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구조를 완화함으로써 단말기 유통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창출하여 이용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은 휴대전화가 이미 포화상태로 신규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0년 7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요금후불로 SIM만을 제공하는 “후불 SIM 단독 플랜” 도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후불 SIM 단독 플랜은 SIM만을 제공하고 계약기간은 보통 1개월 단위이며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판매보조금을 인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되고 있다[14].¹²⁾

12) 영국의 첫 후불 SIM 단독 플랜은 2007년 4월 오렌지 UK가 시작했으며, 타사도 차례차례로 추종하여 2009년 2월의 허치슨 3G UK를 시작으로 MNO(Mobile Network Operator) 총 5개사가 계획을 내놓았고 Virgin 모바일 등 주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도 제공중이다.

영국은 유동성이 높은 선불사용자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포화상태의 휴대전화시장에서 수익증가의 실현이 쉽지 않다. 때문에 이런 선불사용자를 후불로 연결하여 해약률을 감소시키고 ARPU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¹³⁾ 특히 후불 SIM 단독 플랜은 단말기 교체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자신의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타사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USIM을 여러 단말기에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말기의 USIM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하였다.¹⁴⁾ 이로써 SK텔레콤과 KTF(현 KT)에 상관없이 USIM 칩 교체만으로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동통신사업자는 USIM 잠금이 해제된 이후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0년 SK텔레콤과 KT가 USIM을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하여, 소비자의 단말기와 통신사에 대한 선택폭 확대 및 이동통신사 중심시장에서 단말기 중심시장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까지 타사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휴대폰 없이 USIM만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¹⁵⁾ 국내 이동통신사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것을

13) 경제적 부담이 큰 기존 단말기가 있는 플랜의 후불 전환은 힘들지만, 선불 플랜 사양에 매우 가까운 후불 SIM 단독 플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후불 플랜으로의 이행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68조(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식별모델)에서는 2GHz IMT-2000 사업자는 이용자가 USIM 카드를 동일 2GHz IMT-2000 사업자 또는 다른 2GHz IMT-2000 사업자의 USIM 카드로 교체하여 2GHz IMT-2000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삽입하더라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예를 들어 SK텔레콤 가입자가 KT로 번호이동을 하지 않아도 USIM만 구입해 SK텔레콤 번호와 KT 번호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다.

해외사업자 서비스 사용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USIM 단독 개통은 2011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5].¹⁶⁾

일본의 경우, SIM 잠금장치 해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통신사업자의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신방식이나 주파수 대역에 따라 SIM 카드를 교체하더라도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음성통화, 단문메시지서비스, 데이터 통신(인터넷 접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것도 통신방식이 다른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SIM 잠금해제에 대한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총무성이 기대하는 정책 효과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번 결정에 따른 일본 통신시장의 반응은 NTT 도코모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이동통신시장의 1위 사업자인 NTT 도코모는 2011년 4월부터 출시되는 단말부터 SIM 잠금장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소프트뱅크 모바일의 경우는 SIM 카드 잠금장치의 전면적인 해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단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아이폰을 제외한 다른 휴대폰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KDDI는 SIM 카드 잠금장치의 해제를 정부의 간섭이라는 입장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SIM 잠금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대상단말 결정에 사업자의 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들의 반응 및 정부의 의지에 따라 총무성의 SIM 잠금해제에 대한 결정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휴대전화시장이 포

화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와 영국처럼 일본도 휴대전화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휴대폰 없이 SIM만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사업자들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

● 용 어 해 설 ●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가입자의 식별정보를 수록해 휴대폰에 탑재할 수 있는 일종의 칩카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GSM과 CDMA 방식에 따라 SIM과 USIM을 구분하여 사용

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약어 정리

LTE	Long Term Evolution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참고 문헌

- [1] 김정태, “국내외 SIM 잠금장치 관련 규제 동향,” 주간기술동향, 제1371호, IITA, 2008. 11. 5.
- [2] SankeiBiz, ロック解除 来年4月から SIM 指針案一律義務化は見送り, 2010. 5. 27.
- [3] 総務省, 「SIMロック解除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の公表等, 2010. 6. 30.
- [4] 日経コミュニケーション, 総務省が SIMロック解除のガイドライン案を公表, 2011年度発売の一部の端末から解除実施へ, 2010. 5. 28.
- [5] 이기훈·정길수, “NTT 도코모의 SIM 잠금해제와 배경,” 방송통신정책, 제22권 제13호, 2010. 7. 16.
- [6] SankeiBiz, 総務省, 携帯, 「SIM ロック」解除へ原案通り来年4月から, 2010. 6. 30.
- [7] IT Pro, SIMロックとは, 2010. 5. 12.
- [8] 전자신문, NTT도코모, 내년 4월부터 모든 휴대폰 SIM 락 해제, 2010. 7. 8.
- [9] 전자신문, NTT도코모, SIM 락 해제로 ‘아이폰’

16) Ofcom에 의하면 월간 신규 후불 계약에서 차지하는 SIM 플랜 비율이 이미 20%를 넘어서고 있어 영국의 휴대전화시장에서 후불 SIM 단독 플랜이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가입자 노린다, 2010. 7. 12.
- [10] 전자신문, 소프트뱅크, SIM 잠금장치 전면적 해제 안한다, 2010. 7. 19.
- [11] SankeiBiz, 携帯 SIM ロック解除 当面は強制見送り 各社に温度差 消費者, 「後回し」, 2010. 7. 1.
- [12] 전자신문, KDDI, '정부의 과도한 규제 문제 있다,' 2010. 4. 27.
- [13] SankeiBiz, 端末各社, コスト増を懸念 SIM ロック解除 反対鮮明, 2010. 4. 7.
- [14] 日経コミュニケーション, 飽和した英国携帯電話市場の新潮流: 勢いづくポストペイド SIMオンリープラン, 2010. 7. 23.
- [15] 전자신문, 국내 이동사 SIM 제도 전면 개방, 2010. 4. 28.